

조항사 장군을 맞나 오니 덕행이 오나 외멸제로는 유현왕에럽이 되얏사 오니 그마암  
은 변치 아니하야 씨나 제송무지하의 다또한 유현왕이라 하는 거선 그 재예 용명을 보오  
미 능이 호공 환우하 며 승려도 강지술이 잇사 오며 만인에 심이 잇고 팔만 제졸을 부리여  
임의 용지하오니 그 조화 난 참커신이 라 방금 출도 미반하얏사 오니 장군이 순임혈중하  
사 일고 죽승하 시 오니 이 난명련이 도으심이라 일지 기출혈하 시 압기를 천만바라나 이  
다만 약도 슈들 어온 즉사 불성실하 시와 혹시 그 혀를 볼가 두려하나 이 다 십분 처분하옵  
소서 관슈 총파 에 디노 왕요 망흔 기집이 웃지이 갓치 불길한 말을 니난고 종인에 마암을  
요 동케하 니 죄당 살지나 황제에 명이 갓천인명을 살여 니오라 하신고로 아적용셔하거  
니와 일후만약이 갓든 말을 니면 군법을 면치 못하리라 네가 유현왕에럽이 되야 씨나 속  
히 출혈하야 안일한 썸을 짓난다 하며 니쪄치니 흥년이 피축이 되하야 심사지하 니원  
통이 입골이라 종신로록 혈중커신을 면치 못하리니 탁식심장이로다 관수가 람재호식  
하야 속불출혈하 고 음주자락하 더니 일사은 광풍이 되작하 며 사척이 비양하 고운무자  
옥하니 이 난반다 시 유현왕이 들어오난 귀운이라 흥년이 황하 급하야 다시 고왕금일  
도 슈유현왕이 들어 오니 복원 장군은 양척을 지여 불우지 변을 막으소서 관수더욱 디노  
하야 흥년을 옥중에 가두우고 오후에 출참하리라 하 더니 쪽금잇다가 풍운이 되작하 며  
유현왕이 들어오난 디신장이 십여척이요 형용이 괴괴한 디손에 난사 두터 창을 잡고 관

슈에 군을치니 관슈 불의에 유현왕을 만나 군사로하야 금막게하 고 손에 금옥보피를 쥐  
고 안저 더니 수합이 못되야 군사되 피곤지라 홀연이 일광이 청명하 며 풍운이 쉬난지라  
요마가 장창을 두루며 들어가니 관슈에 일신이 졸지에사 두창흔 벽을 면치 못하얏더라  
흥년을 푸러노 으며 왈 니가 쪽금 늦게와 씨면 거의 너를 상할번하 여다하 니 흥년이 심  
각하디 명졸이 다 죽은지라 누슈장유하 니 왕이 문왕상한디가 잇노 요년이 천연디 왈 디  
왕이 일지기도라 오시지 아니하셔 시면 텨이 장차 죽을지라 이 제 구하 여주시니 은덕이  
중흔지라 희심이 충격하야 불각누하 로소이다 왕이 디희하야 등을 만지며 왈 들어올썸  
에 혈외에 여간잇난 명졸을 다 죽인지라 죽키 두려할 비읍시니 안심홀지여다 우리 군사  
와 벽성이 상한재 불소하 니 분심이 텨련흔지라 결코 명련곳에 게보수할바 요번시 명국  
을유의하얏 더니 잘되엿다하 니 흥년이 너심탁지하디 이거시만약 나가 면디명천지에  
비록 영웅호걸이 만라하 나 근심이 적지 아니홀지라 이난도 시늉일신으로 인연하야 화  
불단형으로 디화가 국가에 밋칠이 니차장 너하 오조흔 말로 위로하야 왈 디왕은 쉬일지  
어다일시 지분을 웃지심중이 두사이 갓치하 시리잇가 디왕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인  
간에 나가 시면 조만을 아지 못할지라 접은 웃지홀로여 기잇사 오리요 왕이 디희디소하  
며 왈 디명철의론은 파하리니 안심하 라하 더니 일썸이 명황제 관수를 보느시고 주야로  
근심이 죽지 아니하셔 더니 일사은 혈중에 들어갓다보하 더니 그후로 난종부소식이 라



던안의슈식이 가득하시더니 혈외에엿던군사게우잔명을부지하야도라와보하되관  
수군사천여명을다리고혈중에들어간지심여알리지나되종무소식이압더니불의에  
유현왕이라총하난거시오동환우하교와서호동하난소리에여간혈외에잇난나졸은  
다죽고소졸은슈림서이에피신하야와사오느혈중으로들어갓시니혈중에잇난장졸  
은발서다죽을거시니실로디겁하나이다황제드르시고디경하사서안을쳐탄식하사  
알이갓튼디여를웃지하면소멸할고공연이불상한장졸만죽이여씨니도시짐에과실  
이라빅관을모되우시고상의하시니하신이복지사죄한디황제명하사붓들어이리키  
여알고는웃지이갓치하노하시나잇씩병부상서리관원이분심이충천하야웃지하  
면너아우관수에원수를갑푸리요이난반다시한림하신에연괴라하교허다한병마군  
졸을죽이고국적을허비하여사오니이난도시하신에죄라그죄를사하지못하리이다  
하고복지주달하니이사람에성품이또한양남에마암이잇셔타인에공을투기하며사  
람죽이기를도와하야국권을회롱하고병권을총집하야연결디진하고일심을숨어승  
총의하고종디함을시괴하야히할마음을먹어더니이씩을당하야참소함이요실상제  
아우관슈를싱각함은아니라황제듯지아니하시며알하신은쇼위금석지신이요문  
장이당세에압두하니국가에무쌍사라이갓튼신하를히하면이거선총직현양한저에

길을막음이라하시니좌승상남과목이분발하야알상고간왈병부상서의말씀이충언  
증직하나이다하되황제종불총지하시난지라집에도라와분심이디발하야밤에관목  
관원이하신이히할마음과불칙한계교를싱각하교상의하니관원왕이제황제하신을  
총의함파밋의심이극진한지라만약하신에배사리점々넙혀병권을잡은즉그승품이  
증직하교아등으로더부러구슈간이라아등이저의게죽기를면치못하리니등을교  
동하야중국에들어오게하야등이에심을빌어하신을먼저읍시하교추후로호작구쳐  
함이엇더하노관목이듯고디히하야알니마음과갓도다하교잇튼날글을등이에보너  
여너응함을말하니등이항상이마음이잇스나여의치못하야강병슈천과히군슈천을  
동호상에두고잇더니맛참관목관원에게간을보고디히하야진금보피를보너니양인  
이희심이과망하야명런지를등이와등모하교저하더라  
각절던하승평하교과셔이풍등하니황제빅관을티평당에모되우시고디연을비설하  
시니만민이오락하교빅국이사복하난지라황제던안에희식을피시고왈진한지치란  
과문상무상을말씀하시며문경무항에이르려양터부가의가이집어제에문장이핑디  
한지라디찬하시교제신을도라보사왈차중에누가의와갓치문장이잇느뇨하신디  
제신이키불능당이로되한림학사하신이출반슈왈쇼신이황공하오나감이비교하겟  
나이다황제상을치시며알하신이아니면슈능당지리요그러나가의를디신하야희문



황제에 올린 서를 불알니로 지어 올니라 하신 이 비명하고 북지휘필이 서와 올  
니 오니 황제 보시고 되 찬하사 왕고가의 금가의 로다 하시고 곳되조티부를 비하시 고 겸  
하야 예부상서를 하시니 의영광이 극진하며 고금에 회한함이 러라 신이 사은숙비  
하고 회하여 집에 도라오니 강방이 김부멸이 기지 못야 부옹을 생각하고 낙루하더라 관  
원관 녹양인은 마음 불 편 하야 하신이 보기를 구슈와 처하야 동조하기를 참피이 성  
각하고 후총병부조하더니 하날리 되 명을 도라보시지 아니 하던 지 국운이 비식 하던 지  
황제 우연 득병하사 봉하시고 근문 제 즉위 하시니 제실이 미약하고 조정에 간신이 병전  
을 희롱 하야 관목 관원이 득의 추를 당하야 마음이 활발하며 북방에 군사되고 하며 연병  
이 침노하니 상이 날로 근심하사 좌승상 남관 녹과 병부상서 리관 원으로 상의하시니 가  
련하도다이 키아지를 가져 법에 입에 던지미 요 불히즈에 계 주석을 말함이라 양인이  
희불자승하야 북지휘왕되조 황제 예부상서 하신을 극진이 총익하심은 그 재조를 미듬  
이라 하신이 비록 년소하오나 문무지재를 겸하여 쓰니 하신으로 하야 금연병을 치게 하  
시고 쇼신등이 비록 무재하오나 북방병을 처파하겟나이다 상이 들으시고 되 회하사 곳  
예부상서 하신으로 하야 금정 남되 장군 되사 마되 도독 겸 연남 순무사를 비하시 고 군사  
오만을 주시니 일조에 위 의도 엄속하며 영귀 함도 장하도다이 누에 심잇고 관 녹관 원 양  
인에 심이라 되 저사 팀이 남을 회하 할 생각 이 잇시면 그 사람을 천근이 하고 영귀하게 할

은 중한 이 처라 이 변 하신이 대사 마대 도독이 되 연국을 치게 함은 하신이 변리 무재가  
읍고 다 만문신이라 연국심을 빌어 죽이게 함이라 상이 또 훈남 관목으로 하야 금정 북대  
장군 슈군 절도사를 비하시니 군사 오만이라 관목이 불 열하야 발정치 아니 하난 지라 관  
원이 종용고 왕복 방병이 대승하오니 승삭 관목이 비록 손오에 재조와 양평에 지해가 잇  
스나 당치 못할 거시오 또 한 관목이 방금 승상으로 출전 하난대 원옹을 비하지 아니 하  
니 되 신을 되 접지 아니 함이 요 하신은 일기 문사로 되되사 마되 도독을 비하시니 이 난공  
사 불 편하옴이라 황상은 김히 생각하사 도적을 속기 공하게 하쇼사 상이 듯고 후회 마심  
하사 곳그 말을 쓰쳐 관목으로 원옹을 봉하시 고 부월을 주시며 왕병법을 어기 난지 잇시  
면 선 참후 계하라 하시니 그 제야련은 올비사하 고 되 일 발정하나라 잇세 되사 마 발정하  
야 연국을 바라고 회하더니 도쳐의 유현 국도적에 계 죽어 다 잡피여 갓다 하난 쇼리 민심  
이 흥하하 고 더구나 연병이 침노하고 북병이 되 발하미 민불안돈하 고 사 산분주하야 전  
우구 학하난 지 부지기 슈려라 되사 마이 그 동을 보고 장 탄 불리 하야 왕안으로 되여 가 작  
난하 고 박그로도 적이 되 발하니 차장 되하오하 며 락누하니 군사가 보고 비 참치 아니 하  
난지 음더라 일하은 관막을 치고 쉬을식 대사 마상 전월하에 인심이 요란 할과 적병의 갑  
승함을 생각하미 심사 살난하야 병서를 보다가 잠간 조으더니 되조 황제 락관을 거느리  
시고 오셔 군중을 살펴 보시고 왕 하신이 문장 만잇고 무지 난 읍난 줄알어 더니 지금 보



니 문무지지를 겸하였도다 연이나 별다른 지조읍시니 연국을 장차 웃지 못하며 연을 공  
 호는 또 웃지 난신을 쇼멸하며 동이를 물니 칠고 명국사적 붓들자는 하신이라 하신은 총  
 성이 지극하고 다 그 총성은 지극하니와 그 지조읍심이 가척이로다 하시며 눈물을 흘  
 니여 용포를 셔시우시니 되사 마 황송무지하야 북지양던 탄식하다가 쓰니 남가 일몽이  
 라 면상을 만지여 보니 눈물흔적이 있난지라 목욕지비하고 하날을 향하야 사비 앞축하  
 니 구름이 참담하고 월석이 외회한디 정성이 사 못치고 신령이 강림하신 듯하더라 밤을  
 살어 저 보니 고그 잇튼 날 행하야 밤을 쉬을시 오경초에 월벽이 두흔디 비몽사몽간에  
 일위선관이 박운을 타고 공중에 잇다가 나리여 와 되사 마에 계읍하고 알면 인은 다른 사  
 람이 아니오라 티조 황제를 되시고 잇난 사람이 읊더니 티조 황제 제압셔 명나라에 사방  
 도적이 강승하고 안으로 간악요마가 되치하야 황실이 미약하며 민심이 요란함을 주야  
 근심하사 옥제 누하히 상달하지와 일원셔 책을 으더사 마게 보니 노니 사마난 명심하  
 야 보시고 명실을 붓들고 티여를 쇼멸하고 적국을 쳐 포하시코 난신을 제이하시코 인군  
 을 마저 세우고 공훈을 죽익에 전하소서 하며 표연이 승천하난지라 사마 놀니 저니 모골  
 이 송연하야 살피여 보니 과연 셔척 일원이 압해노이여 난디셔 두에 대조로 천상단셔라  
 하야 거날 심상치 아니하야 향터 죽슈하고 분히 단좌하고 보오니 현々 묘々 지술과 증々  
 명々 한이치가 잇난디요 마 쇼멸법이 잇씨디 자세히 보니 그 주에 하여 씨되 위국지대장

저 민심을 살피여 볼지니 요마가 경년에 되치하니 티여를 웃지 제이치 아니하고 하필에  
 먼적국을 근심하야 먼저 치리요 이난 근번을 노코 그 뜻 설다 사리미라 하얏고 려문리디  
 와 둔갑축디 저법이 잇시니 사마 생각하디 심상한 셔척 썩어나라 티조 황제 제이 보니 심  
 이 분명한지라 심성을 다하여 속독하니 번시파인한 총명과 출천지예로 웃지 지식이 광  
 활치 아니하리요 그 잇튼 날 평명에 군중에 호령왈고 치를 갖추우고 천악산으로 인도하  
 라 하니 군사 총령하고 위의를 엄숙케 하고 고각을 올리며 천악산에 당도하니 봉만은 고  
 합가 석의 쇼사 반공에 잇고 초목은 기치 창검을 좇쳐 려룡하난 듯한 곳에 다스르니 석문  
 이 구지다스난지라 사마 겹을 들어 동남을 가라쳐며 이 십팔슈를 응하야 육경육갑을 의  
 우고 한 번 치니 석문이 편々 포쇄하난지라 군사 보고 그 제야 사마의 지조를 탄복하더라  
 사마 중군을 불러 왈니 혈중에 들어가요 마름한 칼에 쇼멸하고 갓 천벽성을 니오리니 그  
 디 통은 향오를 일치 말고 기달이라 하며 나 무입식을 썩부셔를 부치고 군사 슈익을 다리  
 고 입식을 타고 들어 가니 군사 경복지 아니하난지 읊더라 사마 입식을 타고 순식간에  
 리여가 사방을 살피여 보니 산천과 일월이 명량하고 화여한지라 유현국도를 차자 가니  
 궁궐제도가의 여경사라 천상단셔를 펼쳐들고 완々이 들어 가 합성 한 번 벽역 갓치 지르  
 니 맛참 유현왕이 잇난지라 불의에 쇼리를 듯고 티경하야 팔만귀졸을 호령하야 잡으라  
 하니 팔만귀졸이 일시에 니달어에 위싸거날 사마 한 번 단셔 진언을 외우고 사방을 가라



마며부셔를던지니 팔만키줄이 슈죽을 요동치 못하난지라 유현왕이 당상에 앉저싸가  
이거동을보고 되경하야 요사함을배푸려 호풍환우하고 팔만키줄을 다시 살이여니  
그지조청양치 못할지라 사마츠음에 난살히 지법을헛치아니 하야 더니 그동정을보미  
심상치아니 혼지라 그제야 등운신장을불너 쇼멸부를사방으로부치고 칼을들여공중  
에던지니 검광이 홀년이 백설이분々하야 사방에떨어지니 괴묘하도다 팔만키줄이 삽  
시간에다 읊셔지되 유현왕이라 총하난자논기저잇난지라 사마피이에기여 칼을들고  
당상으로달아든니 형용을부디하여싸나사디를요동치 못하난등신뿐이라 그제야 사  
방부셔를거두우고 인간에잡피여온사람을차질식이씨 홀년이 궁중에초하야 우년이  
근너방을살펴보니 석함한개잇난지라 자세히보니 장이십척이요 광이오척반이라  
년구세적하야 광치난읍시되영롱한괴운과은々한괴기는용궁조화아니면 천상괴보  
러라이상도하야 자세히보니 금조삭이여씨되 모월모일에되 명국되사마되도  
독하신이정남할제개탁이라 하여거날보고 되경되희하야 생각하되 금일이곳개탁할  
날리요 하신씨논엇더한스름잇고 후시우리한림이디스마되도독이되시여연을치러  
가시나 참아치지 못할바논사람의전정이로다이 웃지한일릿고의아불이하야 지너더  
니 불의에되명장이왔다하고 슈시간풍운중으로점점이분々하더니 유현국군출팔만  
키줄이삽시간에비거셔양풍하고 쇼위유현왕이라 하난거선불사동신만당상에잇논

지라 홀년이 일월이 명낭하더니 엇더한일원티장이머리에황금투구를써고몸에적로  
금갑을입어씨니 일월은관옥이요 눈썹은죽엽이라 한손에한척권을잡고 한손에난디  
검을들고사방으로살피여보며 홀년이잇는궁중으로들여오니 풍신도장할시고위의  
도엄숙하다 일변반갑기도하고 일변겁도나논디 자세히보니 갈썩읍난오미불망하던  
한림학사하신이가 분명하다디개반갑고도 혼일을당하면 중정이막키여말을이루  
지 못하고먼저눈물이 압서난법이러무한이보다가 아무말읍시쌍에거구러저등  
곡할다름이라사마의아하야 음성을듯고 안색을보니복색은다르나갈썩읍난영  
낙이아니면송낙(송)의하며 생각하든 홀년이라마음이쾌할두눈이강감아무란줄모  
르고손으로몸만직신々々정신차리여니가지금와시니놀너지마라 홀년이을마썰  
을다가계우정신을차려다시복지돈수하고왈 장군이웃지하신일리시니 사하늘로  
서너리여오셨나닛가 촌년이죽어구천에도라가키신에게속어이리하나키신에게시  
달니기도만이하였지만지금당하야는진위를아지 못할리로다사마그모양을보미정  
신을차리지 못하난지라 칼을노코 홀년의손을잡어각가이안지며만단설화하니 그제  
야 홀년이참인줄알고다시눈물리비오듯하며심중사를담화하니죽어던사람을황천  
에만남이요 산사람이황천에들어감이러라그간이별한말과그간지너던일을말하면  
장황분주한지라제폐하고관수에쇼식을말하고들으미가위장탄일장이러라 일변인



간에 잡피여온 사람을 보니 노니 일등미색여자가 일천오백여인이라 금은보좌를 다 나누어 주니 다 겁버하야 사마에 은덕을 베풀기 감사하되 한 여자가 나 이난이 심가량 뜸되얏며 눈물을 흘이니 사마그마음을 보고 자넨 사랑하난 생각이나 서문왈 너는 웃더한디조 완디 밧지 아니하노고 여조공손이 되얏츠네 한단사압더니 철세에 부모구물하오 매갈바를 아지 못하와 당고모집에가의 지하여 삼더니 당고모 별세하고 자연가세가 불섬하오 매 츠녀를 하단도 근에 팔은 바 되여 약간 글자를 배우고 가무를 공부하와 한단 청루에 제 일방 처가 되얏츠더니 불의에 유현국에 잡피여와 참아 죽지 난 못하옵고 구차 투싱하오 미일각이여 숨추려니 장군에 헤택을 입스와 재부싱하오니 그은 덕이 산고 허심이라 심분지일이니 갑을바를 아지 못하압난디 되리여 금은을 밧는게 의리에 불가 할 썸아 나라이 무도막심한 요악덕여가 도취한 물건을 밧는거시 무어시 당년하리요 일로 썸밧지 아니하겟노이다 스마들으매그말이가 장의리가 잇난지라 다시 문왈 네에 승명이 무어시뇨 그너조답왈 충승은 유요명은 백난이로 쇼이다 사마 사랑하난 생각은 고스하고 착은 혼마음이 잇서 참아 떠나지 못하고 슈작이 장황흔지라 잇썸 홍년이 열해잇서 그슈작하난 동정을 보매가 장지리 할 썸아 나라이 양인에 심스가 상합할듯 혼모양이라 시괴하난 마음이 잇난거시 아니라 그썸할스견에 대하여 조급흔마음이 잇난지라 황망

고왈 방금이 상하온 물건이 잇씨니 사마는 기탁하시와 보소서 기탁할 날도 곳금일이니 참기이한바로 소이다 하며 사마를 뵈시고 썸함잇는 궁중으로 들어가니 사마 웃지한곡 절을 아지 못하고 쌀아들어가 썸함을 보니 심상치아니한 물건이라 암썸썸하고 기탁하니 그안에 금척한키와 옥장한키가 잇스니 용궁조화분명하다 홍년을 보고 왈이건 곳네에 물건이라 밧비 슈습하야 출혈하자하니 홍년이 고스하야 왈 금척은 너조에 취할바요 옥장은 남조에 취할바라 각썸취함이 조흔듯하와다 하며 옥장은 사마에 게드리고 금척은 자기가 취한바 되니라 사마 유현국덕여를 소멸하고 나 무가지를 가져스름 슈효덕로 입식을 가져부서를 부치고 태우어 출혈하니 종군이 군스를 다리고 영접하니 게우반에 은덕을 못니 하례왈 이번우리사마 출군하시미 전필승공필취하시와 티평세게에 만슈무강하소서 하며 다 제집을 행하야가 되지 설벽난이 울기를 마지 아니하며 왈 타인은 집이 잇시니가 건아와나 갖튼스람은 집도 처척도 읊시니 어디로가리요 하야 등곡일장에 만군이 비참흔듯하더라 홍년이 스마에 게고왈 벽년에 괴동을 보오미척은 지심은 인개유지니 웃지창년치아니하리요 소첩과 갖치경스로 올나가 강방을 뵈시고 사마에 성공반스하옵을기달이겟나이다 한디사마 별서이마 함이 읊는 건아니지 만홍년에 동정을 아지 못하야 주저썸하얏더니 디 열허락하고 유현국 천연유를 기록하야 화상



제을니고 곳흥년과 벽난을 치송하야 보니 고발군하야 행할시 도처의 사민에 공덕을 위  
우어 명여 춘되 하니 민심이 자못 진정 되얏더라 이 때 연왕이 명국되사 민유현국을 반일  
에 소멸하고 온다 함을 듯고 근심이 자발하야 뒤소제장을 모되우고 의론하니 뒤장군가  
들뢰가 출쥬왕구싱유취지아를 웃지근심하나 익가소장이 비록 무지하오나 선봉장천  
릉으로 병심동역하야 명스르하신에 목을 배히되 왕전에 밋치리이다 연왕이 뒤희하야  
술습잔을 권하며 왈 성스는 지천이언이와 모스는 지인이라 성불성은 장군두스름손에  
잇스니 심을 다하고 지혜를 닦여 천하를 드는 즉 천하를 반분하야 반은 닦가 차지하고 반  
은 온아 장군두스람을 주리니 충성을 다하라 하며 점々 처들어 갈시 이 때 사민 남경의이  
르러 결척하고 연왕과 할계교를 싱각하야 현상단서를 보더니 옥장쓰는 법이 잇는지라  
뒤희하야 숙독재소에 무불동지하고 희불자승하야 지니더니 군스보하되 발서연군이  
삼십리박게왔나이다 하거늘 장대에 올너 바라보니 창검이셔리갓고 고각이진던하야  
군스철십만과 명장삼천여원이 항오를 일치하니 하고 풍우갓치오는 뒤위의 심히 엄숙  
할지라 님심으로 근심이 적지아니 하나 호령하야 왕군중이 요동치말나 하고 잇더니 연  
군이 십리박게 결척하고 격서를 보니 여씨되언어가 심히 불공할뿐아니라 명일평명에  
상전하야 승패를 결하야 하얏거늘 스마보고 분심이 되발하나 식로하고 종군을 불너 왈  
명일에도 적이와셔도 전할거시니 부디 군문을 구지닷고나지아니 하면 그중에 홀도리

잇스리니 그디 등은 군법을 어긋지말나 군사총령하고 웃지하는 계책을 아지 못하더라  
그잇는날 연군이 군문을 동지하고 선봉마천릉이우수에 삼백근 철퇴를 들고 좌수에 수  
괴를 두루며 함성을 벽역갓치르며 마상에 넘히안저의괴양々하며 위풍이능々한지  
라 명진중에 군문을 구지닷고 접응치아니하니 천룡이 더욱괴승하야 싸움을 도々우되  
종시나지아니하니 군사로히야 금질옥을 무수히하되 안돈불출하니 연진중에서 말하  
되 명장이 겁닌다 하고 가만이승야 음습하기를 췌하야 군사로 질욕도하며 담지도하니  
사마웃지물을 소나 짐작하고 방척할계교를 준비하니 딴소위적수상봉이라사마군사  
로히야 금초기를 가져히인을 지여 군중에 두고 좌부선봉최갑용을 불너 군사습천을주  
며 왈 남으로 사십리를 나가미복하엿다가 금야습경에 수목의 불을 지르고 동으로이십  
니를 즉쥬하야 도적에 양식길을 막고 적군이닷거든 엄살하라 하고 우수선봉리성벽을 불  
너 군사습천을 주며 왈 금야습경에 북으로이십리를 나가 산곡사이에 미복하얏다가 도  
적이되피하야 닳거든 엄살하야 닳지 못하게 하라 하고 중군장유천송을 불너 왈 그디는  
군사일만오천을 주노니 셔으로 십니을 나가미복하엿다가 번군중에서 화광이충천하  
거든 적진을 쳐들어가되 명국괴를 세우고 위풍을 진동하야 고각을 올니고 잇다가 그형  
세를 좇쳐 응접하라 하고 후군장마담을 불너 왈 군사사천을 주노니 셔남간으로 습십니  
를 나가미복하엿다가 금야습경에 사방화광을 좇쳐 화광을 충천하게 하야 도적이닷지



못하게 하라 하고 천이 군사이 만오천을 거나리고 군중에 약속하여 번진중에 초기로 지  
은 허인을 두고 초경에 가만이 후복문을 열고 잠출하여 번진사방에 미복하고 연군 오  
기를 기달이더니 과연 승경에 연군이 북지 잠출하여와 엄습하니 진문이 닫쳐 난디진  
중에 군사만이 잇스나 요동치아니하고 등축이 휘황한지라 연군의 의심하여 들어가지  
못하니 선봉마천룡이 번진에 기별하여 군사 칠십만을 다 모라들어가니 명진중에 강슈  
가 설년듯 산악이 문어지듯 진중을 헤치고 들어가 본즉 명진장졸은 하나도 볼슈옵고  
다만 허인뿐이라 묘계에 빠져진 줄 알고 곳 환군하랴 할차의 공중으로 벽역가튼 소리나며  
사방에 미복한 군사 별때 갖치이러나며 일시 화광이 되 발하여 연열이 축비 총목하며 침  
하야 웃지 할바를 아지 못하고 공중요리나난디를 바라보니 웃더한 일원디 장이 일신단  
검으로 옥장을 잡고 공중에서 오여와 나난달은 사람이 안이라 되 명국사마되 도독  
정남디 장군 하신이라 황상에 연명을 밋자와 천리 출전하미 유현디 여를 만일에 소멸하  
고 연왕이 불순무도 함을 못고 자하여여기 결진하고 잇난지사 오일이로 되 항복지아니  
하 고 군사로 하여금 절육이 무수하며 서찰이 불공막디 하며 또 혼밤을 타서 연병을 음습  
하랴 하니 이갓치 무도함이 어디잇시리요 내 웃지 용서할소나 연왕은 들으라 칠십만군  
졸에 잔명을 익여 항복한즉 용서하려니와 항복지아니한즉 함몰함을 면치 못하리라

군사간이 녹듯듯 모골이 송연하야 웃지 할바를 모르되 선봉천룡은 본디 성품이 강々하  
고 용맹이 과인하야 천인이 당치 못하고 한 번 췌죽강을 근너고 산을 넘던지라 분심이 되  
발하야 필마 단창으로 몸을 소수 위공중으로 올라갈을 들어사마를 치니 승벽근 철회가  
사방으로 빛나며 여산디 호갓치 소리를 벽역가치치르며 달아든니 사마 옥장으로 한번  
천동에 투구를 치니 투구쳐져 마하에 췌러지 난지라 천룡이 분기 텨던 하야 투구를 주  
위사마에 투구를 치니 사마에 투구거의 버셔 절번한지라 사마 또 혼분심을 참지 못하야  
칼을 거두우고 옥장으로 춤추며 공중에 던지니 유현국셔 함중에 어든 옥장 조화 그 웃더  
한 고 금야에 시험중이로다 옥장이 화하야 청룡이 되어 수염을 거사리고 췌리를 치며 천  
룡에 깨달아 드니 천룡이 혼 겁하야 췌에 췌러져 죽는지라 가돌쇠분기 텨던 하야 군사로  
히야 금공중을 쏘라하고 칼을 들어 몸을 소서사마에 깨달아 드니 괴운이 밍 열하고 겁법  
이 심상치안이 한지라 사마 칼을 들어사방을 가라쳐 연상단서던 연을 베풀으니 금광이  
변하야 벽설이 분々하야 돌쇠 일신이 금광중에 잇는지라 돌쇠 정신을 가다드 무며 괴운  
을 일치아니하고 금법이 조금도 변치아니하니 사마 그 지용을 사랑하야 칼을 거두우고  
옥장을 잡아 돌쇠를 가라쳐 왈 그디는 췌쉬우고 내에 말을 들을지 어다한디 돌쇠 칼을 집  
고 서々사마를 향하야 말을 듯고 자하는지라 사마 옥장을 두루며 왈 그디에 지약과 칼씨  
논법을 보미 심히 심상치아니한지라 비록 지용이 잇스나 오리나를 그역지 못할거



시요키술치아니하면옥장에조화로신명을보전치못할거시니그디는부지럽시심을  
 허비치말고현의를순종하라하니돌쇠분기를참지못하여칼을들어치고자하니사마  
 옥장으로막아왈그디을지금갓치히하지아니함은이옥장이번되살명을조와아니하  
 며내역시던명을밧들어불순한죄를문난지라악가마천둥은용역이잇시나중정이히  
 하여자갑하여죽은바라나을원망치말고키술하기를바라노라만약불연한경우에는  
 옥장을바드라하니돌쇠달아들어옥장을치라한디사마그지조를보라하여옥장을흔  
 들어사방을군사로접々이에위싸며화광을충천하게고고각을올리며시색이여류  
 하여사방으로엄살하게하고옥장이화하여청용이되여운우를지으며입을쥬홍갓치  
 벌이고돌쇠에게로달아드니돌쇠조금도겁내지아니하고칼을들어청용을막으며  
 운이종시여일하거날사마옥장을거두니돌쇠번군을내리여다보니사방에화광이점  
 々충천하며고각함성은런지진동하고금구시색이나열하니철만군졸이웃지할바를  
 모르고서루발바죽난제부지기수라사마을바리고번진중에내리여가연왕과장졸을  
 다리고번진을향하여가거날접々히싸인군사돌쇠에날닐칼을바더신명을부치니그  
 형세밍호출림이라사마옥장을집고공중에서보니그지용이괴묘흔지라옥장을들어  
 군사를나누워연군에길을막지아니하게하니돌쇠피병을드리고명진을버서져번딘  
 에들어가라하니불시의명졸이내달아치거날디경하여살림보니디명기를세우고양

초를달취하얏난지라하릴읍서남을바라보미화광이충천한지라남으로가지못하고  
 북으로향하여이십니를나가니산노가심히흠악한지라북병이잇슬가염여하야나  
 가지못하고군사로히야금담지하니과연북병이내달아엄살하난지라돌쇠안던탄식  
 하드가분심을참지못하여필마단창으로명군슈익을한칼에죽이니리성벽이디적하  
 야슈십여합의당치못하고달아날시중군장유천송이적딘을탈취하고연군이북으로  
 가멀알고군사를드리고오난지라돌쇠마저싸와심여합에성벽이칼을들고협공하난  
 지라돌쇠능히적하며서북간으로갈시화광이점々이러나고고각이진동하난디습  
 십니을못가마담이군사를드리고길을막난지라돌쇠사마에디모용역을탄복하야그  
 썩에싸진줄알지라사방에미복한군사잇고군사게우철만이라하릴읍서자문코저하  
 다가홀년이싱각하미엿적도맹덕은화룡도좁은길의관공을만나살아나셔군사를발  
 하야다시동오를치고촉한을엿보와싸나나도금야슴경의사방에미복한군사가잇고  
 화광이충던하야곤란이무수할뿐아니라진소위알모도궁하니인간이하세오동제비  
 야로다연이나명사마를보미거의죽이지아니할듯한지라내심을다하야버서저나감  
 이올도다하고다시칼을들어연왕을괴시고군사를거나리여동으로도망하니좌부선  
 봉최갑용이양식길을발서신큰내달아호령하야알도적은닷지말라내에팔지청이사  
 정이읍난지라하며백총마을모라나오니위풍이능々하고창빛치월석을회룡하난디



신장이구척이요얼골이적로빗치라그용역잇슴을알녀라한번보미범에셔리를밧고  
 입을만짐이라하릴읍서칼을들어적하니쌍용이여의주를희롱하난듯양호가밥을  
 다두는듯이십여합의승부를결단치못하더니돌쇠괴운이쇠진호야칼을한번실수하  
 미갑용의팔지창이번듯하며돌쇠에가삼을지르라하더니공중으로서홀연이디호알  
 좌부선봉최갑용은적장을히하지말고나를기다리라하거날갑용이창을멈추고바라  
 보니디사마옥장을집고공중에서々돌쇠를잡시간의성금하니갑용이분년이사마에  
 게고왈사마는소장에심을빌어소장에공을써앗는다하교창을들어돌쇠를치라하난  
 지라사마미소하고갑용을말니여왈그디에용역은니가아난바라무어설근심하리오  
 살지불상이라하니갑용이그제야창을뉘이는지라사마돌쇠를다리고번전에도라오  
 니연왕은그름을타서도망하얏더라사마승전함은디희치아니하교적장은든것을디  
 열하야돌쇠에손을잡어당상으로오르라하니돌쇠고사불충하야왈니지금시운이불  
 길하야이지경이되야씨나웃지이갓치무례하리요하며위풍이능々호지라사마공경  
 하야친이쉴에너려가무례함을사내하교다시당상에안치고주효를나와심히관디하  
 니돌쇠초음에는상음치아니하다가사마지성으로관디하미돌쇠자연갑복하야주효  
 를먹고마암을의논할시사마승퇴지술을물으니돌쇠돈수사왈퇴군지장이웃지하야  
 말습하오며또호사마난련신이시라련신지전에인간용부가웃지알비잇시리요사마

되리어이갓치하오면등의아니오라하거날사마그마암을짐작하교승퇴지술을못지  
 아니하고그잇은날연국을향할시돌쇠눈물을흘녀여쫓지안이하니사마돌쇠에충심  
 을탄복하야왈그디난넘어케탄치말나디명련디에연왕이여심을두워련명을그역하  
 니이난용납지못할죄를웃지용서하리요마는장군에지혜로웃지이갓치하나노연왕  
 이귀순하면조금도연국에혁를보이지아니하교도라갈싸름이라무엇을한하리요돌  
 쇠듯고이러지비왈사마에말슴을듯자오니참군자에마암이라연국이사마를만나부  
 지하겟나이다하며충찬하기를마지아니하더라사마발군하야연국에들어갈시이썩  
 연왕이일야지간의뢰하야선봉마천통을죽이고디장군가돌쇠를일코철십만군졸이  
 성산수류한지라오즉돌쇠에마암을알어비록잡피여갓싸나반다시도라오리라하교  
 군사를취집하니또호이십오육천명이라주야로돌쇠도라오기를바라더니돌쇠는안  
 이오고명사마군스를모라점々들어오며돌쇠에서간이와거달기탁하여보니하야씨  
 되

모년모월모일의불충신가돌쇠는연왕전에빅비상언하느이다소장이무지무용하  
 음고하날이도라보시지안이하사일야지간의선봉마천통을일코철십만디군이운  
 비년산호은지라연전수십여합에소장이필마단창으로괴운이쇠진하교시운이비  
 석하와같은번실슈하오미최갑용에날닌창에죽기를면치못하야잡더니명사마하



신이 옥장을 들어 갑용을 막고 소장을 삼시간의 성금호오니 소장이 잡히니 되여 명진  
 에가 오미명사마조금도 홀디치아니호고 판디호기를 마지아니호난지라 그의 리잇  
 슴으로 귀향호오미씨로 디왕을 칭각호오니 송한이 등에 젖저 몸돌곳을 아지 못호나  
 이다명사마이제 디병을 거나리고 들어가미연국이 당치 못할지라 디왕이 귀순호심  
 을기 달이음이요 전멸치아니하고 자하음이라 디왕은 겁히 칭각호시와 속히 귀순호  
 시고 연국익성에 성명을도라보시압소서 또호디 왕께서도 하량호시논바어니와 명  
 사마하신은런신이요그마암이 현한군조이라 항거불리호오니 십분치량호소서쇼  
 장이 비록 투항호앗사오나 웃지고 국을 칭각치아니호리요 남련을 바라매 슈운이첩  
 사하고 사동이노호호야고안이 남비호오매 단서를상달호오니 무장금이 탄지호고  
 의잔과이압지호오니 흥격이여 열호오며 체루방라호야알외을 곳을아압지 못호오  
 니 천만도량하쇼서 성황성공하노이다

연왕이 보기를다호미누슈자령호야용포를적시논지라 두말안이하고 항복하기를일  
 슴씨라이씨명사마연국익니의들어가유진호고연왕에 동정을살피더니참연왕에  
 사신이서간을가지고와서을니며야모날연왕아항복하기로 작정호고먼저서간을을  
 니여구사한정성을표하노이다호거날사마집버호야연국사신을후디하야보니고돌  
 죄를불너보인디돌죄일희일비하야고왕연왕이당초의불순한스음을들은천동소장

의말을듯고하음이라이제천통은황천에도라가고소장은명딘에잡피여온지라칭각  
 하압건디연왕이반다시항복하오리니사마는의심치스압소서사마듯고디희호야군  
 사를유진호고연왕항복할날을기달이더니과년그날의연왕이디소제신을거나리고  
 군사슈익과소거익마로명진군문압해니거날사마급히성에니리여연왕을보고예  
 하니연왕이돈슈익비하거날사마연왕을마저당상에안치고왕에예로접디호니연왕  
 이과만하야사마를보고황송무디호야일후다시불칙한마암을두지안이호기로밍세  
 호며후회막대호야웃지할바를아지 못호여돌죄잇는곳을못난지라사마손을들어연  
 왕에등뒤를가라치며안식이불편호거날연왕이곡절을아지 못호고도라보니돌죄갑  
 두를반은벗고눈물만흘니고섯논지라연왕이보고서루눈물만흘닐다름이라사마왕  
 군신지의에불가무예니돌죄난연왕전에비일지어다돌죄그제야연왕전의비복호야  
 통곡호미연왕이또호유체답에하니일군중이보고비참치안이할지읍더라연왕이다  
 시읍고왕죄사무척으로또이갓쳐무례하오니사마는십분용서호소서사마왕대왕은  
 넘어그리지말고잇시라호고군중에호령호야그치를나열호고창금을엄숙히호연  
 왕을보고왕대명던디에연국이변방소국으로항거불순호야민심을소동호며소위가  
 심히대역무도한지라황상제압서근심하사하신을보니여치라호시난지라황명을밧  
 자와런병을거나리고유현대여를반일의소멸호고발군호야대왕으로더부러결척한



지오리되종시귀순치아니하고절육이무수하니이갓치무도함이대명던지에잇시리  
 요한대연왕이고두빅비고며잔명을비는지라사마왕연왕에죄난즉지아나하나이갓  
 치의결하니다시연왕을봉하여연국부귀를누리게하리니대왕은진심갈여하야우으  
 로황제를성기고아리로빅성을다시여자손손이연국부귀를누려단심을다하  
 소서연왕이고두사는하거날돌쇠또한복디비사하기를마지아니하더라연왕이지성  
 으로의결하야왕사마를피쳐연경으로도라가수일유식하기를청원하니사마연왕으  
 로한가지연경에들어가살피여보매산천이명낭하고물석이화려흔지라니심으로흠  
 선하기를마지안이고궁중에들어가보니궁궐제도가또한찰는하야경사에비할너  
 라연왕이대년을비설하고가주미효를나오며호음미식으로사마에마암을절겁게하  
 며런은을감축하야사마를만호후로순식간의불순한마암을바리고현인군주에마암  
 을조처현주명군이되얏더라사마군사를일히상주고유식하며연국을처항복받고  
 연국대장가돌쇠를싱금하야그디모도약이잇슴으로군중에두어쓰니황상은연왕과  
 돌쇠에죄를사하고연왕은연왕에봉작을주시고돌쇠는관작을너리사국사를막지  
 말으소서일로연유를상달하니상이보시고대희하사왕대사마하신이유현대여를반  
 일에소멸하고연국을쳐수일지간의파하야연왕을항복받고적장가돌쇠를싱금하야  
 써니이난병선이라하고의사를보되사특별이초람왕을봉하시니식읍이이천여호

요디방이리천여리라아직초람에나가지말고왕호만총상하야그대훈을상주는표를  
 하이시고아직은십삼성도의스를비하사성주에정치착지못함과민심에쇼요를암찰  
 진정하고북병이강승하니곳군사를먼저보며후일을기달니여반사하라하고연  
 왕은경에말대로연왕을봉하고적장가돌쇠난좌부선봉장을비하고기타제장은일  
 이관작을사급하시고초람왕에부친하유로초람왕노야왕을봉하시고왕부인은초람  
 노야리후를봉하시고초람왕부인강씨로초람왕비를봉하시고호년으로호열부인을  
 봉하시니하문의영귀함이만고에초음이요일도의지극한지라이씨리관원이마참득  
 병십여일에오리입조치아니하얏더니상이관원에게문의치안이하고자작하신바라  
 관원이원리초람왕으로원슈갓치되다가이갓치영귀함을듯고분을하기를마지안  
 이하야원중남관목에귀별하야홍계를도모하며상을더욱공경치아니하니그홍계웃  
 더하고원중남관목이발군하야북병을칠시북군대장도밍봉이군사슴심만을거나리  
 고상접하야팔십여합의불분승부러매봉은번시지양이잇고용역이과인하야일빅  
 팔십근장창을써며대만호준마를타시니일순간의천리를헛하는지라명군를대적하  
 디경홀치아니할지라결진하고잇서명군에동정을살피더라관목은원리신이역사요  
 니약이잇난지라그지조를밋고초람왕하신을연국에심을벌어죽이고자그난북병을  
 교전하야승패를결치안이하고리관위과교통하야황상께고하고동이를불너구원을



청야복병을파하고연국은비록군사만으나동이가중국에들어와복병과함들면감이되적지못할지니되신을연결교통하야황상을니치고련위를도모고자함이러니하신이반일만에유현디여를소멸하고연군으로교전하야속일지간의연왕을흥복받고되공을세우어초람왕이되고심삼성도의사가되야성주에손불손을살피라하은다관목관원에천척비당이라만약하신이순찰하면그증직함마암에죽이면면치못할것이니그도근심이되건이와자기는수월이지나되일촌지공을세우지못하니슈치함이즉지안이함며화상이관원도아지못하게천이초치하심에대하야원한이입골한지라관원에게동지함을보고역시일반이라주야로근심하야복병공기논고사하고하신이히하기를일습어음식이불감하며백사를전폐하야지니더니들이미하신이초람왕위를받고심삼성도의사가되야곳환군치안이함고연국에유딘하야연왕으로더부러날마다되연을배설하고잇다함들으니홍계가지적차산중이라관원으로히야금황상에게고되초람왕하신이연국에머물너연왕으로날마다되연을배설하고진기며환군치안이함니이난반다시두마암을두음이라또호연국대장가돌쇠논일대영웅이라명딘에흥복한후로존공을세우지못하야거날하신이황상에게두달하야관작을니리니영웅을사피며연왕을교통하야불칙한마암을두미라황상은일지기의명을니

리사군사를파하게하시고하신을죽이여후일대화가읍게하시고연왕과돌쇠를다음시하사불우지환을막으소서함며날로고간이무수하니상이들으신지처음의썩지저활초람왕하신은번리충성이지극하고문장이과연하야난신적조에알을입에니지안이하며이번출전하디되훈을세운지라되리여히함면국법이히하리니다시말하지말나하시니관원이수색이만면하야다시기구치못함고집에도라와싱각하디분입골수라되신을연결하야다시고간하니만점혹은이청던백일을가리난듯상이반신반의하야의심이자년싱겨더라일々は연인호준영이라하난지잇셔공부상셔문상민을보와상에게고되초람왕하신이연왕으로더부러교통하야연국되장가돌쇠로하야금선봉을삼어쳐들어온다하니썩하시도다상이제신에게물으니되신이일출여구라상이그제야승상관원을불러상의하시니가통가분이로다소인에참소함고간교함으로감언이설을니옴이여자고로암류가소인에말들으니소인을충신이라함고충신을역신이라하야소인장중에짜지난법은증한이치라시고로인군이인군되고신하가신하되기가극난이라하노라상이들으시고련조를니리스즉일군사를파하고아직요동으로원찬하라하시더라사마초람왕봉하신칙교를받자와련은을비스하며제장에관작을도명되로일라이분비함고연왕에게지를주니련은이망극하야갑복함며연왕이일번되연을비설함고초람왕에은덕을못니스레하야말류함며노더니일々は의소황



명을가지고와서군사를죽일파하고초람왕은아직요동으로원찬하라하니이엇  
지훈일인고기간연국익성이초람왕에덕화를입어충송이마지아니하더니이소문을  
듯고서루분을향며참혹하야락누치안이하느니지읍더라초람왕이북디탄식하야왕  
위난원리분슈에지남이라포의한사로황상에덕택을입어조고마한공을세우미참남  
히왕호를받자오니이는요동원찬이런리에맛당하온지라웃지황송치아니하며쪽금  
이라도웃지황상을원역하리요글어하나소인에참소들으시고하신으로히야금반  
심을둔다하니이갓튼누명을면치못하고디하에도라간들티조황제를무순면목으로  
보오리요하며누수령々하야의상을적시우며쌍을쳐통곡하니그형용은참아보지못  
할니라연왕과돌쇠면관돈슈하야왕초람왕에이무죄훈투명을입어만리요동에원찬  
하시옵은다우리예죄라우리두스름에죄목을론슈하스먼저초치하소서초람왕이왕  
시하언야오년에죄요디왕과장군에죄난아니라아무썩룩디왕은익성을다스리고잇  
셔그형편을보소서이썩최감용이분년이고왕군중에난장군에령을듯고런저에조셔  
는듯지아니하다하오니이제디왕이슈월지간에디훈을세우스작일에초람왕을봉하  
시고금일에파군하고원찬하라하시니이난소인에참소들으심이라먼저스신을배  
이여군중의호령하시고군사를거나려경스의들어가도정에참소한쇼인의목을배여  
원한을풀으쇼서또리성벽마담유천송등제장이고왕쇼장등은장하에죽스와도군스

는파하지못하겠나이다도시좌승상겸원융남관목과병부상서겸디스훈디승스리관  
원이티왕을원슈와갓치하야주야로히하고자하되도정에의론과익성의원역을무셔  
워하야금일싸지형하지못하더니이썩승시하야이갓치하옵은니쇼장등은맛당이군  
스를거라려경스에들어가리관원의목을한칼에베이고원융남관목을대칼에죽이고  
북군을쳐파하야도라와황상을보이겟나이다하며분심을참지못하야칼을들어난간  
을치니난간이썩어지난지라초람왕이제장에그동을보고잠간미소하며작언왕군등  
은분심을실지여다다가당초에십년등하에독서한스라무지함을무릅시고제장등에  
심을입어공훈을세우어초람왕위를받자오니분슈에지남이라또한흥진비리와고진  
감난던도지상년이라방금황상세압서던스를보니스군사를파하고요동에원찬하  
라하시는데군사를파하지아니하고제장등에말과갓치한죽참반심을두음이라금일  
파군하고제장등은아직연국에잇서형세를보와주선함이올도다하니돌쇠고왕쇼장  
은말씀알을슈습스오나고셔에하엿시되쇼인지교는감여밀이라하여씨니불과슈왕  
지간의반다시변고잇스오리니초람왕에지휘대로아직여기잇서좌관기형이가하도  
다하니제장등이마지아니하야탄식할싸름이라잇썩초람왕노야부々와초람왕비강  
씨부인과호열부인흥년이초람왕이무단이요동만에원찬한단말을듯고웃지분을  
하며원통치아니하리요런디가망々하고강산이답々하야웃지할줄을아지못하더니



후인이 초름왕에서 간을 올리거날 반갑기도 하지 마옵소서 참한 생각이 대발하야 일자 동쪽에  
곡성이 남자하니 이 섬 백난이 초름왕의 은덕을 생각하미 강부인 호열부인에 지나지 아  
니 한지라 비참한 마음을 여제 못하야 눈물을 흘리며 마암을 진정치 못하코 노야 부  
강부인 호열부인을 위로하야 왕에게 유공갓트신 승인도 관처에 참소를 만났고 만고 승  
인공부조도 진치지익을 당하스씨니 이제 초름왕께 압서 무죄히 쇼인에 참소를 만나 원  
찬하시니 미구에 천천에 구름이 끼이고 백일이 명날 할 날이 잇시리니 이 갓치 웃지하  
리요 과도 하심이 오라 진정하시와 초름왕의 서간을 보쇼셔 노야 부와 장부인은 호홉  
장탄하기를 마지아니 하노지라 호열부인은 의안이 병々한스름 갓치 아무 말이 읊시  
고 백난이 다시 정신을 수습하야 기탁하야 보고 들으니 하엿시되

불초조신은 글을 노천전에 올리니 이다 불초조황은 을 밧자와 요형이 초공을 세우  
던 이 망극한지라던지 신명이 미워하시고 강산 초목이 마시하스 이번 요동 원찬을  
밧자 오니 분수에 맛당하온지라 북망노천은 불초조신을 과도히 염여치마시고 괴력  
을 보중하스 청련일명 할 씨를 달이 신즉 불초조신이 비록 죄명을 입스오나 자년 발  
명할 날이 잇스오리니 염여치마압시고 불초조성 환고국하기를 달리시외 천만 보  
중하심을 북망々々이 외다 하엿거날

노야 부々듯고 더욱이 석하는지라 호열부인이 비심을 여제하코 노야 부々와 강부인을

위로하야 진정하나 그 원통하고이 석함을 다 기록지 못할너라 초름왕이 하릴 읊셔 요동  
을 바라고 향할시 제장이 십니 박게나와 전별하코 심중스름 의론하니 티산이 무겁지안  
코 황하가 되리여 앓더라 돌쇠와 강용등이 죽기로 썩썩쳐가고자하니 초름왕이 누차 말  
니 되초름왕은 만리요동에 원찬하시미고 고초 곤난이 무수할지라 쇼장등은 웃지편안  
이 잇서 포식난의로 지너리요 하며 좃는지라 초름왕이 마지 못하야 동행하야 갈시갈스  
록 비회원여이강가 일층이러라 이 섬 원용남관목은 북군으로 썩상전치아니하코 초름  
왕히하기를 썩하야 과년 뜻과 갓치 요동만리에 원찬보너미마암이 쾌락한지라 대희하  
야 또 호부족하마암이 잇서리 관원에게 괴별하야 적병이 강승하야 파하지 못하겟다  
고 동이에 구원청하기를 통고하얏더라 관원이 상제고 왕복병이 강승하야 원용에 심으  
로 썩파하지 못하다하오니 동이에 구원을 청하야 원용을 도우어 북병을 파하게하시고  
연을 쳐연왕을 베이어 달은 종친을 세워던하를 반석과 갓치 굿게하쇼셔 한대가련하도  
다 황상에 말씀이어 국스를 경이 다 알아츠치하라하스니 관목이 스은 숙비하코 곧 글을  
동이에 부치니 동이대희하야 군스오 십만을 조발하야 주야를 띠도하야 중국에 들어오  
니 불상하다 학성이여 죽음이 산갓고스시가 편하스니 황상에 원여이 웃지읍시리요시  
일은 갈상고하노소리 민간에 진동하더라 상이동이 대장은 방티형으로 적북대장을 비  
하시고 리관 원으로 켜니 군마를 총무하게하며 요정벽스를 간섭하라하스니 관원이던은



을비스호고문방티청을북방에보니여관목에후군이되여북병을치라호니티청이군  
스를모라북병으로상전할시번시티청은심이역스요용맹이과인한지라맹봉으로써  
상적호미진소위적수상봉이라철십여합에불분승부라남관목이북병을이히로써달  
니여홍북한족부귀를일평성루리고또호명던즈를니치고던호를삼분호야천익년이  
가도록서루상별치안이호고지니자호니도맹봉도싱각호미티명이동이구원호야협  
공호미북병이비록강승호나당치못할거시오오리그역호다가는죽어떨면치못할지  
나그진위를아지못호야관목에게회답호니관목이장디에안저칼을들어견양에피를  
가져망세호야북병을보이니맹봉이또호장대에안저보고확신대회호야또호맹서를  
써서보니고곳군스를거나리고명진에가호북호니관목이당상에안치고술을나와권  
호야왈도장군과남관목이웃지상봉이느지리요호며티청을청호야숨인이진일도록  
담론장황호니일면이여구라동성상응호고동기상종이라고명천즈니또철계교를  
연구호니의론이분류호며가장비밀호더니황혼의맹봉은번진으로도라가고관목은  
티청과동야상의호미습경이지나오경에달함을아지못호더라잇튼날상제글을을니  
여북병을쳐대장조맹봉을호북바닷다호니상이보시고대회호스왈진소위원왕이로  
다호시고관원을불니상의호여속키반스호라호시니관목이맹봉으로히야금중군장  
을두어아적원방에유진호고맹봉은한가지경스로돌어가상의조치호자호고죽일반

스호야경스로들어갈시상이문무관목을거나리고심니박게나와영접호니구경호노  
백성이구름모이듯호야노변에비북련락할시백성중혹노숙한스름은락누호며왈우  
리초람왕이무죄히요동만리에원찬호야이갓치반스치못호고남원융만승전반스호  
니일회일비로다호며티평가를불으지안이호니남관목이니심탁지호미민심을웃지  
못한지라분심이대발호야구경호노백성수백을죽이고경스로들어올시금은을주어  
백성으로히야금남원융이승전반스호시미백성이티평호고천호가편안호다호라호  
니그씨나이씨나돈이라호면죽어도죽는체사라도사는체호는법이라일시에백성이  
호가왈남원융이승전반스호시미천호티평호고국가무스호야백성이티평가를불으  
니우리원융대々々손々히와후장상을핍절치말고영구히만수무강호소서호니관  
목이그제야대회호야희색을면상에띄우고왈왕후이씨를황제이씨로기량함이웃더  
한고호더라상이잇씨원융을영접호시라호고교외에나오스원융이승전반스호고원  
노의무스히환군함을위로호시미관목이대장은군례로보인다호고마상에넙히안저  
읍호여보이니웃지역적에마암인들이갓트리요무례무도함이후일날니천대서지나  
지안이호다상이이갓치무례함을보시고도아무마암이읍시관목으로한가지궁중  
에들어가스죽일대연을비설호시고관목티청과조맹봉을위로호스관목으로진왕을  
봉호시고습천호를주시며맹봉으로선봉을비호시고티청으로대스마대도독수육군



을거나리여변방을직키게하시고산동성철십주를주위동으로하야금니외지교를미지니아직은국가를반석에둔듯후일염여가읍더라관목이딘왕이심중에부족다하야관원과상의하야근문제황상즉위이후로병난이즉지아니하교상서가읍서던하가불안하교창성이도탄중에잇다하교근문제를니치고자괴가던하가되고자하야일하은백관을모되오고대연을비설하교왕니가북방지병을치군스하나도상치안이하교홍복바다던하를박척지고의두미백성이날로히야금던하를숨어부귀를루리게하니니가참아못할비라경등에마암에난엇더한고각々그마암을말하라하니백관이하나도그역지못하교다만당연하다하교그중관목관원에편당은딘국에상서잇서딘왕으로히야금던하되리라하교비계를올니니관목이디열하야즉일근문제를불너오라하미갑용에형갑홍이와마담에아우마총이와유천송에아달유춘충등제인이분심을참지못하야칼을들고관목관원두사람을보고디호왕이무도막심한역적놈아디명던지에황던이무섭지아니한야무위시부족하야역적이되고자하야죽기를자원하나노황상에은덕을입어조정벽신이관목에신하되기가원이냐이갓치무도한역적이어디로갈소나하며관목을치라하니티청밍봉두사람이칼을들어마저싸와불과수합에갑홍등이황천길을차지니가련하다조정벽관이여관목에신하되기가원이아니라그위풍에강포를잡하교모진성명을익기여그리함이라승상관원이관목을보고왕갑홍에중제

갑용과마총에형마담과유춘충에이비유천송이며하신에부하장이일하이하나도도라오지아니하얏나니다하나관목이관원을보고왕하신은양호유환이라이놈이요동만리에원찬하엿싸나니가승전반사하야던하되얏다하면반다시그저잇지아니할거시요부하장이천죽죽음을한하야연왕과교통하교솔병이니하리니이장차웃지할고관원이답왈디왕은염여치마소서하신이비록던상단서를으더신통한지조가잇고유현국에옥장을으더공중에다나난법이잇싸나아직구성유취치아요죽々한문사라웃지죽키근심하오릿가그러나근문제용열무지하교흔도극심하야나도아지못하게하신으로초롬왕을봉하교그이비하유는존가농부라노야왕을봉하며쇼위홍년이라하난년은번시촌인이라유현철에들어가요악한망양에덥이되야거날중병자락하교실절치아니하얏다하교여중호걸이라하야호열부인을봉하니이갓치미혹한일이또잇시리요니항상불가히예기노비라디왕이도라오신후에초치하교자하엿사오니디왕은홍년을불너그죄를논지하야니아우관슈에원수를갑퍼주소서관목이듯고왕승상은싸하도다금일싸지두워웃지니에대말하난요인후한마암이참니에승상될만하도다곳군스를호령하야하신에천노야부々강부인홍년을일하히자바오라하니군사총영하교하문권슬을디령하야난지라관목이조정상좌에안저호령하야왕하유야들으라네가존가농부로초롬왕노야되기가불가하교또흔네에자석하신이비록존공



이있다하나연왕으로더부러교통하야반심을두어난지라니가승상리판원씨에게고  
별하야십분용셔하야요동으로아직원찬하야씨나만약니영을뜻지아니하면네에일  
문이참혹할썬외라당초에네자식이디사마디도독이되야연국을치라하엿거날연국  
을치지아니하고련조가읍시먼저유현국을쳐서제의시비익침흥년을니왔시니그죄  
가죽지아니하며또니가승전반사하오미네가집에잇서영접지아니하니그무도함이  
어디잇스리요네죄가죽어맛당하니가특별이용셔하야북방에원찬한다하니노야  
번디충직하고인후하야분노함이읍시나금일에당하야는분심이디발하얏는지라관  
목을보고일장디소하야왈네가금일은흔던동디하야나를이갓치하나우리황상은승  
군이시라불공한형위를하지말지어다니가네손에죽으면죽엇지네에강포를밧더북  
방에원찬하리요니가네에신하아니라웃지하야네에말을쫓치리요우으로황련이잇  
고리조황제에신령이기신나무섭지도안이한야자고이리로역적이무수하나왕망동  
탁에지난놈은너하고판원이로다하며호령이추상갓트니판목이디분하야군사로히  
야금곳죽이라하니판원이말니여왈디왕은일지기분노하심을참으소서저거시번디  
노망이잇서하음이니십분용셔하지와죽이지말으시고북방으로원찬하시와디왕과  
역한죄를표시하소서하니판원에말을쫓쳐아직물니치고강부인과흥년을불너오라  
하야계하에업치고왈네의서방하신이원리벽항공사로다형이련은을입어배살이에

부상서의을으리니이지중지하야연을쳐파하고오라하야디사마디도독을숨으미마  
암이자만하고쫓시의를하야련조가읍시유현국을쳐포하고흥년을니오고금은보패  
를무수히웃드되니에게난일기를보니지안이하고또한연국을쳐연왕을항복바닷신  
즉곳반사함이당연할지라반사치아니하고연왕으로더부러날마다디연을배설하  
고연국디장가돌죄를교통하야반심을두니의리읍고무도함이어디잇스리요흥년은자  
세히들으라너난번시촌인으로하신에첩이되얏신즉죽어도하신을성길지라유현국  
에들어가유현요마에첩이되야씨나충병이다무엇시며실절이니수절이니별소리가  
다잇도다여중호걸이라열여수절이라하며글을하신에게부치여디조황제가근심하  
사관수리장군을보니시미네일신으로히야금죽어유현국을불키키이되야씨니그무도  
요악함이어디잇스리요너난죽음을한하디말나하며군사를호령하야디처참함을나  
열하니흥년이일변의통도하며일변분심이대발하야왈대왕은웃지천지를종신토록  
성기지아니하고자충천즈되야비서가잇다상서가잇다하고저갓치무도하며우리초  
름왕은무순죄가잇서요동만리에원찬이웃지함인고아지못할바로다판수장군은니  
에말을뜻지안이하고답지호식하야십여일이지나되출혈치안이하고니가출혈하  
라하디되리여나를요마불길한말을한다하야죽이고자하더니유현대회를만나사오니  
자취함이라웃지나를원망하리요우리초름왕은마암이현인군즈이시라반일만에유



현대여를쇼멸하야잡히여간여즈에중성을살릴뿐안이라민간만인에대화를읍시하  
여씨니비록던소가읍다하나과이범죄될것이읍고천상단서에천상육황제합서명촉  
키가라기심이라천명을밧들어형호음이니웃지일호사정이잇스리요수월지간의연  
왕을항복밧고가돌쇠를싱금하니대공을세운지라공을황상제돌여보니고심을제장  
에게밀워공훈을자랑치안이하거날웃지사심이잇스리요남천에혹운이빅일을가리  
여그명낭한광채를일은지라대왕이무순면목을들고이갓치하며초름왕과는무슴대  
수가잇서일문을이갓치하노슴약에하엿싸되상현조는앙급삼세하고폐현조는신수  
그히하고절현조는기명이불전이라하야씨니웃지장구히복록을바드리요악한마암  
을너버리시고착한마암을가저우으로황상을성기고날로현량한사람을나와그직분  
을다하오면무어시부족할가대왕은회심하소서관목이들으미수괴지심이가득하나  
쇼인에마암이라대노익심하야알너는촌인여조라웃지이갓치말이불공불순할가요  
망하고방자호년이어갓치비양원역하야너에전정을말하니천참만육할년이어대또  
잇스리요군사를호령하야곳디칼에목을베이라하니군소총령하고주기관관원  
이호년에안석을보미아우관수에싱각은고사하고불갓튼육심이나셔가만이싱각하  
되저거설방금죽이라하난디너가죽이지못하게하면저거시반다시너의은공을알지  
라니가사름으로하야금불으면제가여중호걸이요하신을위하야천만고초를다지나

되충열를일치아니하야씨나니말을웃지그역하리요하고관목에게고왈저거시번시  
촌인이라예절을아지못하고말슴을불공이하와되왕을노촉하온지라맛당이주금죄  
를범하야씨나살지불상이라십썬용서하시와살여주소서너에년고로인연하야주  
오면너가참아못할비로소이다하니관복과관원은참마암이상일하야오장을서루밧  
난터이라관원에말을좃쳐아즉용서하야물니치고강씨부인을불너게하에업치고그  
자식을보니진소위경국지식이라그마암을보라하야호령하야알네에서방이국은을  
아지못하고연왕으로교통하야반심을두고민심을요동하야요동에원찬하얏시나제  
장을해치지아니하고외면적으로만원찬하니이갓치무도함이어디잇스리요너에일  
문이도시오악한지라너에서부하유부조는북방에아직원찬하고홍년을죽이라하얏  
더너리승상이강권하야아직죽이지아니하얏시나반다시불원간의별반치할거시  
요너너의셔방에죄로써당장죽이라하야씨니너에안석을보미청춘이불상한지라  
아직용서하야보너노니홍년으로더부러내집에도라가잇서너에명령을기달이라하  
며창검이나열하고호령이청년빅일에뇌성이진동하듯한지라강부인들이들으미분  
한마암이디발하야두발이상지하고모골이송연한듯관목을보고디척하니심조구중  
에처하야외인남조로언어가읍더니금일처음으로다네가무슴일로우리왕을요동  
만리에원찬하며또너난네부모도아지못하난야노오노하야이급인저노라하얏거날



철십노인우리노야니외분부슴일로북방에원찬하나아직용서한다아직촉이지아니  
한다이갓치무도합이고금천지에잇서리요네가되々로국록을먹고천은을아지못하  
야황상을니치라하되우리초람왕에충성종직하심을염여하야무죄한군조호걸을알  
상고간하야원찬보니고네뜻되로하고자하니무슴변괴엇고상천이무섭지아니한야  
이무도한역적놈아딘왕부커가무엇시부족하야히필역적이되고자하는요역적에마  
암은아지못할비로다삼시간자충천조라하야호일날만민에천참만육을면치못하고  
슴족을멸하는고네가우리황상께불공한행위만하면우리디왕들이시고육장집고공  
중에형하야사방으로군사를모집하며천상단서폐쳐들고네에목을구월한산락엽  
갓치일진광풍을만나이산저산차자갈제모양도표박하다저기안진리관원아네가슴  
상이나이무도한놈아너는무슴일로남관북과동모하야천하만고에괴악망칙한역적  
이되난요불상하고가공하다너에두놈후일날신세여네에말을후세에초동목수들이  
라도이산저산이들저들단이면서디명역적남관북과리관원에목비듯물은풀을어서  
비여한집하고수음조흔동구나무아리가셔낫쌈한심잘가이와갓튼루명을면치못하  
리니웃지최은치아니리요네가무슴능력으로우리덕을망하고자하난요하디호령이  
밍열하며위풍이당돌하니관목이듯고리가막기여한번미소하며왈속기죽고자하야  
이갓치흔다하노야부々는일변북방으로원찬하고강부인과홍년은하옥하라하니

하문에작일부귀영화가금일고초간난이로다철십노인노야부々못의의화를만나천  
금갓치귀한아달초람왕을요동만리에원찬보니고청춘소부어진며나리와여중호걸  
충성도지극하고만사의민첩한홍년을심々육중에가두우고북방만리차자갈식북풍  
한설치운날에초수오산도로난이라길이흙하야갈수이나소々씩발철십노옹과력부  
쳐갈수이나거름々々이탄석이요노상에눈물흔적이라구천에서모친충성국은을싱  
각하고역적남관북과리관원을싱각하미자년이쏘다지논눈물리육철왈벽은장마비  
갓치디방천리하야방타지리하고절치부심미친한은하운이다괴봉이라비오고기인  
하날에여름구름이천래만형변화하야을으난듯범아부에등창으돌지로다수양산벽  
이숙제치미아사하신절기만고에장하도다가연하도다니팔조여장사심년고초격신  
한지디충소무는충열도지극하도다삭풍한설차고치운날에웃지하여지나갈고죽고  
자하나초람왕우리아달그러웃지하나사々이봉변이요쳐々이고성이라창랑가한곡  
조불은후소상강점은날에풍덩실싸져어북장하야씨면슴여디충혼을바들손야불상  
도하고분한도하다남적에강포를바디북방원찬가단말가이통々々하더니노상에괴  
절하난지라왕부인은정신이답々두눈이감々아무랄줄모르더니그괴색함을보고북  
들고이통하야가삼을주먹으로뺨々치다가또흔괴절하니불상하도다노야부々씩발  
노인괴사하신시체누가잇서거더줄가이씨남관북이노야부々를북방에원찬보니고



니심으로 생각하되 강부인에게 자색을 보니 욕심이 더 발하여 웃지하면 저거 설웃들고  
 야 그수치함을 도라보지 안코 다만 호식리짜만 알아 옥에가 두우고 이부시랑 오춘화로  
 히야 금천금을 주워 왕강부인을 달니 여그마 암을 돌니 게 하라 하니 춘화라 하는 자는 번  
 시위인이 찰난하며 언변에 수단이 잇서 타인에 불복함과 불통역함에 더 하야 능이 하난  
 자라듯 고 더 하야 야 반에 등을 발키고 옥문을 열고 들어가 강부인을 감언리 설로 달니  
 되 종불충지하고 치지도 외 하난 자라 춘화한 참 언변을 수 단 켜르려 논는데 웃더 하인  
 이서 간한 장을가지고 호열부인을 차자 전하거날 춘화 중지하고 그서 간을 다보기를 기  
 달이더니 호열부인이 보고 아무말읍시신 썩 못할 신작버서 던지듯 하난 자라 춘화의심  
 하야 호열부인을 보고 용서하시요 하고 서간을 들고 보니 승상리 관원의 필적이 분명한  
 디그서 의에 더 강하여 써되니 아우 관수에 죽음은 다 천수라 수원수 구하리 요네가 딴왕  
 에게 죽을 결니가 역권하야 그히를 보지 안이 하얏시니 너난 여중호걸이라 웃지니 의은  
 덕을아지 못할 쇼냐 하신은 만리요동에 원천하야 써니그싱사를아지 못할지라 니가년  
 금육심이라 그역은 읍다 하나 흥년은 감니 할듯 하니 구일지정을 생각지 말고 나와 갖치  
 뵈발청춘이 동거하야 부귀를 한가지 함이 엇더한 요 금야 숨경의 하인으로 히야 금등을  
 보니 리니 해년니사 하라 하얏거날 춘화보고 홀연의 귀가 발하야 일어 저비고 왈 니년 금  
 반박이지나되이 갖치 무도무의함을 보지 못하얏도다 아우 리역적이라 하나 마암이이

지경에 밋치리 요 남관목이 저를 천금을 주며 초람왕비 강부인을 달니 여오라 하기에 왓  
 삼더니 또리 관원이이 갖치 무례하게 서간을 하야 사오니 아우 리 춘화 갖치 금천만 알고  
 인의를아지 못하나 웃저 갖치 무도무의한 놈에 일을 하리 요저는 금야로 부터 심산궁  
 곡중으로도 망하야 여성을 보니고 자하나 두부인에게 명은 시각에 잇난 자라 웃지하면 조  
 홀잇고 하며 의리가 외면에 나타니 난지라 눈치 날린 호열부인 천만 통상다 지니고 여익  
 이미 진하야 거각의 심으로 또이 지경을 당하디 비참한 생각은 측양읍시나 역제하고 미  
 소왈고 명에마암이 착하온지라 말슴을듯 자오미 감격무지하오나 니에마암을 돌니 지  
 못하리니 부지럼시 입만수고 치말고 속키도라가 관목 관원에게 말하 여저 밤비 죽이  
 여달나고 하라 하니 춘화듯고 단식하야 왈 진소위녀 중군조로 다니에 수단으로 난달니  
 지 못하겟다 하고 곳돌아가나라 호열부인이 춘화를 보니고 생각하니 강부인과 자기  
 몸에 더 화가 당도하야 난지라 암々이 생각하디 사세가 망하고 추급한지라 유현국에  
 엇든금척을 항상이상하고 괴이하야 품속에 감추워 더니 홀연이 생각하고 금척을 더  
 자란 하야 왈 금척은들으라 금척과 옥장이 다 용궁 조화분명한지라 옥장은 초람왕이가  
 지시와 연국디 군철십만을 샅시간에 파하고 공중을 육지 갖치 행하건이와 금척은 너  
 게온지오리 되고 조화를아지 못한지라 이제 초름왕비 강부인과 흥년에 신명이 시각  
 에 잇난지라 금척 조화 웃지아지 못하리 요 우리 두사람에 신명을 살피사 곳고 구든 옥문